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신태용 감독이 13일 오전 일본 도쿄 아지노모토 스타디움 웨스트 필드에서 2017 EAFF E-1 챔피언십 일본전을 대비해 훈련 전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韓축구대표팀, 일본 찍고 우승 가자”

오는 16일 동아시아컵 일본전... 반드시 승리해야 2연패 가능

신태용 감독 “앞으로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 강조할 것”

한국축구의 동아시아컵 2연패 달성 여부는 최종전인 일본전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2일 일본 도쿄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 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북한과의 2차전에서 1-0 승리를 거뒀다. 9일 중국전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한 한국은 북한전에서 상대 자책골로 골키퍼가 아닌 승리를 챙기면서 1승1무(승점 4)를 기록했다. 북한은 2연패에 빠졌고 중국도 1무1패(승점 1)로 우승권에서 멀어진 상황이다.

이번 대회 우승국은 개최국인 일본(승점 6)과의 최종전에서 결정된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를 대표해 러시아월드컵 본선 무대에 나선다. 양국 모두 이 대회를 월드컵 진출전으로 여기며 팀 조직력을 다지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의 역대 전적에서 40승23무14패로 앞서 있다. 다만 동아시아컵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였다. 총 6차례 만나 1승에 그쳤다. 무승부 3회, 패배 2회다. 중국전 무승부로 승점 4에 머문

한국은 16일 일본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2연패를 이룰 수 있다. 반면 일본은 한결 여유롭다. 무승부만 거뒀도 정상에 오른다.

우승 상금은 솜털하다. 일본은 대회 우승팀에게 남아 대표팀 25만 달러(약 2억8000만원), 2위 15만 달러(약 1억6800만원)를 지급한다.

한국은 중국전에서 김신욱(전북)의 활약으로 재미를 봤고 북한과의 2차전에서는 진성욱(제주) 카드로 어느 정도 희망을 봤다. 상대가 수비에 주력할 때면 무더지는 공격력, 고집적으로 지켜받는 수비 불안 문

제는 여전히 숙제다. 신태용 감독은 “지난 경기는 뒤로하고 앞으로 선수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겠다. 같이 월드컵에 나가는 상황에서 멋진 경기를 통해 일본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일본은 1차 북한전, 2차 중국전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중국전에서 골 맛을 본 리고 득점왕 고바야시 유(가와사키 프론타레)를 앞세워 한국과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 대표팀 바히드 할릴호지치(보스니아) 감독은 중국전을 마친 후 “몇몇 선수들의 피로도와 부상이 걱정된다. 또 한국에는 좋은 선수가 어느 정도 희망을 봤다. 상대가 수비에 주력할 때면 무더지는 공격력, 고집적으로 지켜받는 수비 불안 문

# 김신욱·이명주, 7년간 한번도 못 이긴 “일본 잡고 꼭 우승”

“한일전 중요성 알고있어... 좋은 결과 있을 것”

김신욱(전북)과 이명주(서울)가 한·일전 승리를 다짐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3일 일본 도쿄 아지노모토 스타디움 웨스트 필드(보조경기장)에서 회복 훈련을 하면서 일본전에 대비했다.

1승1무(승점 4)를 기록 중인 한국은 2연승을 달린 일본(승점 6)과 16일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 2017 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최종전을 벌인다. 이 경기에서 이긴 팀이 골 우승팀이 된다.

김신욱은 “사실상 결승전이고 중요한 경기다. 한국에서 많은 팬들이 볼텐데 우리가 멋진 경기를 통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신 감독은 중국전 무승부 북한전 승리에 만족감을 표한 바 있다. 그러나 월드컵을 앞둔 시점인만큼 대표팀의 경기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신욱은 “선수들 모두 감독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중국전에서 실점한 부분이 아쉽고, 북한전에는 교체 투입돼 추가골을 넣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고백했다.

전날 북한전을 마친 대표팀은 경기 후 관중석에서 일본과 중국의 경기를 지켜보며 해법찾기에 나섰다. 휴식 차원에서 전반전만 보고 숙소로 돌아갔다.

김신욱은 “중국이 워낙 수비적으로 나와 일본이 고집했던 것 같다. 후반에 중국의 체력이 떨어지면서 일본이 승리한 것 같다”고 일본의 플레이를 평했다.

김신욱은 대표팀과 소속팀에서 일본과 많이 만났다. 그때마다 일본에 김신욱의 피지컬에 밀려 고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 7년 동안 단 한 번도 일본을 이기지 못했다.



“민약 경기를 뒀다면 키 위주보다는 중국전에서 했던 것처럼 유기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겠다”는 김신욱은 “선수들도 한일전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그 동안 일본의 패스 플레이에 고집했다. 하지만 일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명주도 한일전 승리의욕을 불태웠다. 이 대회를 마치고 군 복무를 위해 경찰청에 입대하는 이명주는 “좋은 모습을 보여준 후 입대하

고 싶다”고 말했다.

“충분히 우승 기회가 남아있다. 그것보다 한일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결과에 따라 이번 대회의 소집 의미가 좌우된다고 본다. 잘 준비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전에 관한 느낌도 밝혔다. “어제 중국과의 경기를 지켜봤는데 패스 플레이가 좋았다. 일본은 상대방 압박을 강하게 하든지 혹은 내려서서 지키든지 늘 똑같은 것 같다. 이를 잘 파악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명주에게도 이번 동아시아컵은 월드컵으로 가는 중요한 무대다. 확실한 눈도장을 받아야 러시아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

“몸 상태가 안 좋아 100%를 보여주지 못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잘해야 한다. 모든 걸 신경쓰면 부담감이 생길 수 있다. 감독님이 원하는 것을 캐치해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스

# 이상화 “감 잡았다”

자신감 되찾은 빙속 여제... “본 무대는 올림픽”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500m 3연패를 노리는 ‘빙속 여제’ 이상화(28·스포츠투트)가 “감을 잡았다. 본 무대는 올림픽”이라며 굳은 각오를 드러냈다.

이상화를 비롯한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이 2017~201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4차 대회를 마치고 12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상화는 지난 시즌에 이어 올 시즌 월드컵 대회 여자 500m 금메달을 모두 쓸어담은 ‘속적’ 고 다이아 나오(31·일본)에 계속 밀린 탓에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 그래도 메달 6개를 수집했다. 월드컵 1차 대회 1, 2차 레이스에서 연달아 은메달을 딴 이상화는 월드컵 2차 대회 1차 레이스에서 7위에 그쳤으나 2차 레이스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월드컵 3차 대회와 월드컵 4차 대회 1, 2차 레이스에서는 연달아 은메달을 수확했다.

기록을 살펴보면 더욱 희망적이다. 월드컵 3, 4차 대회에서 잇따라 36초대 기록을 냈다. 4차 대회 1, 2차 레이스에서는 연달아 첫 100m 기록이 10초2대를 찍었다.

이상화는 월드컵 3차 대회에서 36초86을 기록했다. 이상화가 36초대 기록을 낸 것은 2015년 11월 2015~2016시즌 월드컵 1차 대회 1차 레이스(36초99) 이후 2년여 만이다. 월드컵 4차 대회 1차 레이스에서는 고다이아보다 빠른 첫 100m 기록(10초29)을 내면서 36초71을 기록했고, 2차 레이스에서도 36초79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상화는 “월드컵 1, 2차 대회는 감을 잡는 레이스였다.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3, 4차 대회였다”며 “36초대에 진입하고 첫 100m 기록을 줄였다”는 것에 대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즌을 치르면서 고다이아와



격차를 좁인 이상화는 “월드컵 3차 대회 때 감을 찾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본 무대는 올림픽이다. 올림픽 여자 500m 3연패에 대한 자신감은 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이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기록 차가 1초 이상이 아니라 0.02초, 0.03초대 금메달을 따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질적인 원 무릎 부상에 오른 종아리 부상까지 떠안았던 지난 시즌과 달리 자신만의 ‘감’을 찾은 것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던 원인이다.

이상화는 “지난 시즌에 한 번도 나의 레이스를 펼친 적이 없었다. 실수도 많았다”며 “감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월드컵 3차 대회부터 감을 찾은 것 같다. 대회를 치르면서 몸이 기억하던 것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시즌 고다이아와 비슷하게 갔다면, 올 시즌이 누가 이길지 잘 몰랐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보이기도 했다.

종아리 부상 탓에 잃었던 속도감을 찾은 것이 이상화가 ‘감’을 찾았다고 하는 이유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는데, 고다이아를 타다보니 빨라지고 있는 것 같다. 잃었던 속도감을 찾았다”고 확인했다.

이상화는 “올림픽까지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던대로 준비하겠다. 첫 올림픽 출전이 아닌 만큼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이정후, 연봉도 신인왕

2700만원서 307.4% 인상 1억1000만원

고졸 투키 신인왕 이정후(18)가 두루 300%가 넘는 연봉 인상을 기록하며 역대연봉 선수가 됐다. 넥센 히어로즈는 13일 고척 스카이돔 구단 사무실에서 이정후와 기존의 2700만원에서 8300만원에 2018년 연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작년 시즌 신인왕 신재영의 연봉 인상률과 같다. 팀내 최고연봉 인상률 타이 기록이다.

이정후는 “생각보다 빨리 역대 연봉을 받게 돼 신기하고 기쁘다. 구단에서 좋은 대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다”며 “무엇보다 1차 지명해 준 넥센에서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넥센과 스카우트팀, 경기장에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믿어준 감독님과 코치님, 또 많은 도움을 준 선배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밝혔다.

“데뷔 1년차에 풀타임으로 출전하면서 프로는 역시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지만 한편으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신인이기에 조금만 잘해도 칭찬 해주고 주목 받았는데, 진짜 평가는 내년부터라고 생각한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

이정후는 올 시즌 144경기에 모두 출전하며 타율 0.324(552타수 179안타) 2홈런 111득점 47타점 12도루를 기록했다.

전 경기에 출전한 5명 중 1명이며, 최다안타와 득점 부문 각 3위에 올랐다. 역대 신인 최다 안타와 최다 득점 기록을 수립했다. 2007년 임태훈(당시 두산) 이후 10년만에 입단 첫해 신인왕에 등극했다. 시즌 종료 후에는 국가대표로 선발돼 2017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에 참가하기도 했다.

이정후는 “현재 웨이트 위주로 훈련을 하며 비시즌 일정을 보내고 있다. 스프링캠프에 대비해 근육량을 늘리고 힘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준비를 잘해서 내년 시즌은 올 시즌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전남드래곤즈 유스출신 신인 5명 선발

청소년 대표 경력

전남드래곤즈(사장 신승재)가 U-20 청소년 대표 경력을 가진 유스 출신 최익진, 신찬우를 비롯한 신진하, 진지현, 한창우 이상 5명을 우선지명 선수로 영입했다.

미드필더인 최익진 선수는 청소년대표팀과 아주대에 이어 좌우 측면 수비부터 공격까지 두루 경험을 한 멀티플레이어이다. 또한 광천고 시절 팀의 주장으로 활약하며 2015년 백운기 대회 우승에 이어 K리그 U-18 챔피언십 초대 우승을 이끌며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한 전남의 기대주이다.

최익진 선수와 함께 U-20 청소년 대표 출신인 신찬우 선수는 빌드업과 테크닉, 순간 돌파력뿐만 아니라 왼발 크로싱, 프리킥 능력이 좋은 좌측수비수로 연령별 대표팀을 두루 거친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이다.

2017 대학선발 출신인 신진하 선수는 지구력과 체력이 좋아 활동감이 많고 개인 기술과 빠른 스피드 이용한 공격 가담 능력이 뛰어나 오른쪽 측면 수비수이다.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진지현 선수와 왼쪽 측면 공격수인 한창우 선수는 힘과 체력을 바탕으로 빠른 발을 이용해 뒷공간을 파고



드는 돌파력이 탁월하며, 정확한 크로스가 장점이 선수들이다. 유스 출신 신인선수들은 “유스 출신으로서 전남에 입단하게 되어 기쁘다. 비록 프로에 첫 발을 내딛은 신인이지만 유스 출신 김영욱, 이슬찬, 한찬희 선수들처럼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우선지명 신인선수 프로필

은 다음과 같다. 최익진 미드필더(광양제철고 - 아주대 175cm, 66kg 1997년생), 신찬우 좌측수비수(광양제철고 - 연세대 174cm, 71kg 1997년생), 신진하 우측수비수(광양제철고 - 한양대 177cm, 71kg 1996년생), 진지현 우측공격수(광양제철고 - 호남대 175cm, 72kg 1995년생) 김승호 전남동부추진본부장